



발행인 : 중장 박남수
주관 : 서기관 문화식
편집부장 : 4학년 김지윤
인쇄처 : 우리디엔씨

육사신보

육사신보사
1955년 10월 15일 창간
139-80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74
☎(02)972-7700, 2197-6221~2
E-mail(인터넷) : kmanews@kma.ac.kr
E-mail(국방망) : kmanews@army.mil

2013년 4월 30일 화요일 단기 4346년 (음력 3월 21일)

The Korea Military Academy Press

[1985, 1, 13,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육사신보 제549호 (月刊)

4학년 전 생도에게 ‘智仁勇刀’ 수여

“刀를 보면서 교훈의 가치를 내면화 하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기백 이어받아 반드시 승리하는 리더가 되길”



학교장 박남수 장군이 4학년 생도 전원에게 지인용도를 수여하고 있다.

본교는 4월 5일 학교장 주관으로 화랑연병장에서 4학년 전 생도를 대상으로 ‘智仁勇刀’ 수여식을 거행했다. 행사는 지인용도 수여, 학교장 축사, 분열 순으로 진행됐다.

지인용도 수여는 육사 개교 이래 처음 이뤄지는 학교 행사로, 기존의 지휘군무생도 의식용 수준의刀에서 격상해 4학년 생도는 예비 정예장교

로서 刀를 휴대하는 의미로 승화했다. 刀의 수여 의미는, 4학년들이 지인용도를 개인이 직접 보관하면서 마음속에 국가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인식하고, 스스로 장교로서 자부심을 고양하고 자기성찰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고결한 품성을 완성하는 데 있다. 이로써 4학년 생도들은 정예장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검은 장교의 상징으로서, 장교만이 검을 휴대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군관도 검을 휴대했다. 이는 지휘자로서 통솔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 전통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외국 사관학교의 경우 프랑스 생시르 사관학교에서는 최고 학년으로 진급 시 예도를 수여하고 있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4학년 진학 시 예도를 수여하고 있으며, 스페인 육군사관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학교장은 축사에서 “생도들이 의형적으로 칼을 휴대했다고 해서 장교의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내면적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칼의 명칭인 지인용도”라며 “학교의 교훈인 智仁勇의 가치가 완전히 내면화되었을 때 비로소 정예장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4학년 생도들은 졸업 전까지 정예장교로서 智仁勇의 가치를

내면화 하였는가를 각자의 칼을 보며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은 당상의 검에 ‘삼척서천 산하동색, 일취소탕 혈염산하(三尺誓天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강산이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적신다)’라고 새기고 무인으로서의 정신과 기백을 다졌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사관생도들은 충무공의 정신과 기백을 이어받아 국가에 충성을 다하며, 유사시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리더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윤 기자
ct6904@kma.ac.kr



4학년 생도들은 각 생도 호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인용도를 보면서 매일 교훈의 가치를 내면화하게 된다.

육사인 모교방문의 날 행사

‘자랑스러운 육사인상’ 시상 및 통합 임관기념행사도 함께 치러

임관 50주년 맞은 19기부터 29기, 39기, 49기, 59기까지 선·후배 동문 참여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을 받은 김중하(왼쪽)오명(오른쪽) 동문이 총동창회장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본교는 4월 26일 화랑연병장에서 육사 총동창회장 등 외부 초청인사와 사관생도 및 학교 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육사인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동창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육사인상’과 총 동창회관 건립기금 출연 감사장 수여, 그리고 10년 단위 통합 임관기념행사가 이어졌다.

매년 총동창회에서는 모교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육사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을 선정하여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을 수여하는데, 올해는 김중하(예비역 대위, 13기) 전 대한올림픽위원장과 오명(예비역 대령, 18기) 전 초대 과기부 장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중하 동문은 1957년 육사 13기로 임관했으며, 대위로 예편한 이후(취) 고려합성 창업 발기인을 시작으로 33년간 한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기업인으로 은퇴 이후에는 체육계로 활동 무대를 옮겨 체육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86 서울 아시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는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 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물론,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함으로써 체육인으로 국가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오명 동문은 1962년 육사 18기로 졸업, 美 뉴욕주립대학원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14년간 육사 전자공학 교수로 후배 양성에 헌신하다, 1980년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20여 년간 네 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체신부·건설교통부·과학기술부 등 다양한 부처의 장·차관을 성공적으로 역임하면서 ‘현대의 황희

정승’으로 불렸으며, 특히,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기획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의 IT 강국이 되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오 동문은 공직을 떠난 이후에도 동아일보 사장·회장, 아주대 및 건국대 총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 학계·언론계가 뽑은 ‘광복 50년, 한국을 바꾼 100인’, ‘한국을 이끈 관료 베스트 100’, 고위 공무원이 뽑은 ‘성공한 장관 4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합 임관기념행사를 개최해 임관 50주년을 맞은 19기부터 29기, 39기, 49기, 임관 10주년이 되는 59기까지 선·후배 동문이 함께 모교에 모여 지난 추억을 회상하는 자리가 마련돼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명권재 기자 ct6924@kma.ac.kr



since 1946

67

67년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Korea Military Academy

학교장, KTV ‘정책플러스’ 출연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육사의 본 모습 적극 홍보



학교장 박남수 장군이 KTV 정책플러스에 출연해 대담하고 있다.

학교장은 4월 9일 KTV(한국정책방송) ‘정책플러스’에 출연해 육군사관학교의 교육 목표 및 방향을 설명하고, 위국헌신의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본교의 본 모습을 홍보했다.

이번 출연은 KTV 측에서 새 정부

의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각 군사관학교의 인재양성 목표와 발전방향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해 와 이뤄지게 되었다.

학교장은 20여 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최근의 안보상황과 육군사관

학교의 인재상, 여성도 수석 졸업에 대한 생각, 졸업생들의 다양한 진로, 육사 교육시스템의 특징, 리더십 능력 배양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담내용 5면에 계속)

진성현 기자 c17319@kma.ac.kr

제51대 생도대장 구재서 장군 취임

최영철 장군은 성공적으로 중책 완수하고 국방부로 영전

제50·51대 생도대장 이취임식이 4월 24일 학교장 주관으로 화랑연병장에서 거행됐다. 행사는 군기 이양, 열병, 학교장 훈시, 이임사, 취임사, 기념품 증정, 분열 순으로 진행됐다.

제51대 생도대장으로 취임한 구재서 장군은 '86년 육사 42기로 입관해 71사단 작전참모, 32사단 연대장, 육본 정책실 정책기획과장 등 각급 제대에서 지휘관 및 참모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주요 정책부서에서 복무하며 육군의 발전과 문화혁신을 주도했고, 육군의 슬로건인 '강한친구 대한육군'을 입안하기도 했다. 구 장군은 평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추진과 부대관리로 선후배 장병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온 훌륭한 장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 장군은 취임사에서 생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내일의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자”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을 꼭 가야 할 길로 안내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최영철 장군은 '11년 12월 제50대 생도대장으로 부임한 이래,



구재서 장군(중앙)과 최영철 장군이 생도들을 열병하고 있다.

생도 스스로 4년간의 생도생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훈육시스템 개선과 찾아가는 맞춤형 훈육으로 생도 개인별 리더십 역량을 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의 생도문화를 정착시켰다. 특히 정예장교 양성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틀과 실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위국헌신 국가간성의 양성 기반을 구축하

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기고 국방부로 영전했다.

학교장(중앙 박남수)은 훈시에서 “신임 생도대장의 지휘 아래, 생도대가 지금까지 정립된 시스템 속에서 더욱 안정된 가운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새로 정립된 육사 정예장교 양성 아키텍처의 구현에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재호 기자 c17230@kma.ac.kr

제16기 화랑리더십 과정 수료

4월 12일, 본교는 'UN봉사단 CEO Summit 과정' 55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화랑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화랑리더십 과정은 사회 지도층 인사의 親 군·육사화로 학교발전

도모하고자 2010년 6월에 처음 개설됐다. 현재까지 15개 기수 594명이 수료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공

유하고, 군 리더십과 사회 다양한 분야 리더십 접목과 사회 지도급 인사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과정은 학교소개, 안보특강, 상무활동, 화랑의식 참관, 기념관·박물관 견학 순으로 실시됐다.

안재호 기자 c17230@kma.ac.kr

제17회 화랑문예전 수상작 발표

최우수에 시부문 임창은, 수필 부문 김선진

제17회 화랑문예전에 대한 심사결과가 4월 17일 발표됐다. 화랑문예전은 육사 동문 및 가족, 학부모, 사관생도, 육사 근무장병 등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공모전이다.

이번 문예전에는 총 129편(시 97편, 수필 32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본교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입상자가 선정됐다. 심사위원장 정재민 교수는 “여러 응모자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엿볼 수 있었다”라며 “더 많은 이가 참가해 문학작 글쓰기의 정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꿔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수상자 6명에게는 학교장 상장과 상패, 그리고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그중 부문별 최우수 2명에게는 5월 1일 화랑연병장에서 개최되는 개교 67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직접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시 부문 : 최우수 '도공(陶工)'(2학년 임창은), 우수 '휴가 3'(일병 김태양, 근무지원단), 가작 '물레방아'(대위 오경택, 교수부)

□ 수필 부문: 최우수 '여러 장의 명함'(2학년 김선진), 우수 '아빠와 검은 베레모'(4학년 최은비), 가작 '진정한 군인의 길'(일병 박충명, 근무지원단)

최재훈 기자 c17328@kma.ac.kr

3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 통합교육

'13학년도 3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 통합교육이 4월 22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1학년 생도 통합교육 일정은 2주기(4. 22 ~ 6.31), 3주기(9. 2 ~ 11. 1), 4주기(11. 24 ~ 12. 27)로 진행되며, 각 학교에서 9주씩 3개 학교를 순회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1학년 생도들은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정교수는 육사 32기로 입관 후 미 조지아공대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과 중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3월 3일 교수부 무기공학 과에 부임한 이후, 무기공학, 무기체계학, 기동시스템공학, 시스템 설계, 제어시스템공학 등을 생도들에게 교육하여, 현대 과학화군의 화력 및 기동 분야의 운용능력을 배양하는데

김기범 기자 c17119@kma.ac.kr

육사발전기금 정기이사회 개최

글로벌 전사연구 여행 등 23개 목적사업 지원

육사발전기금 정기이사회가 3월 30일 김진영 이사장, 박남수 상임이사(학교장)를 비롯한 16명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생도회관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이사장 인사, 신임이사 인사, 회의록 낭독, 경과보고,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심의에는 '12년도 결산 및 감사 결과, '13년도 예산편성 계획, 임원 임명, 규정 개정 등이 있었다.

'13년도에는 글로벌 전사연구 여행(생도해외문화탐방)을 포함한 23개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등 11.3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새 임원으로 이사에 김태영(29기, 제42대 국방부 장관), 라정찬(주) 알앤엘바이오 회장, 교내감사에 이재영(34기, 기계공학 교수), 명예이사에 이건수(동아일렉콤 회장)가 각각 임명됐다. 기금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개정이 논의됐으며, 기금조성 장기 목표액을 장기적 비전과 현실에 맞게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생도해외문화탐방 방식 생도 개인부담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가 끝난 후에 전임임원 공로

매달, 신임임원 위촉장, 동문유자녀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05년부터 시작된 정승화 장군 장학금은 현재까지 26명에게 6,800만원이 지원됐고, '12년부터 시작된 편동수박수에 장학금은 10명에게 2,800만원이 지원됐다.

이사장은 목표에 치중해서 본질인 발전기금 설립 목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였으며, '13년도도 기금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생도교육 및 육사발전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임민식 기자 c17285@kma.ac.kr

행정부장 윤상호 장군 전역식

“꿈은 크게 가지되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열정으로 끊임없이 정진하길”



윤상호 장군이 전역식에서 사관생도들의 경례에 답하고 있다.

4월 19일, 행정부장 윤상호 장군이 화랑연병장에서 학교 전 간부와 사관생도, 내외 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역식을 갖고, 36년간의 군 생

활을 마무리했다.

윤 장군은 1977년 육사 37기로 입관해 36년간 야전 지휘관과 참모 직책 등의 군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2010년 12월 본교 행정부장으로 부임해 28개월간 재직하면서 탁월한 소통 능력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원들을 단결시킨 가운데, 교수부와 생도대의 역할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 외에도 선진 교육 근무환경 구축, 함동성 강화 기반 조성, '나라사랑 교육'의 도장 역할 강화, 지자체·지역주민과 유대강화, 국내의 교류협력 활성화, 생도 모집정원 확대, 서애관 리모델링, 종합경기장 신축, 근무지원단 생활관 신축 등 학교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윤 장군은 사관생도들에게 “꿈은 크게 가지되 불광불급(不狂不及) 즉 미치지 않으면 이를 수 없으니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례내용 4면)

명권재 기자 c16924@kma.ac.kr

무기공학과 정백기 교수 정년퇴임

“많이 생각하고 많이 활동하라(多思多動)”



현신했다. 또한 소수경쟁기 개발, 방탄분야 성능 측정, 국방로봇 분야 연구 등을 통해 무인화 무기체계 및 무기 현대화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정 교수는 재직기간 중 도서관 정보체계과장, 군사과학대학원 무기공학과장, 육사발전기금 사무국장 및 감사, 교수부 공학처장과 교수직급 승진심의 위원회를 비롯한 다수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발전에 헌신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이사,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수준조사위원, 육본 전략물자사업단 자문위원,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원 판정기술 자문위원 등 군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재형 기자 c17271@kma.ac.kr

‘선진 국방으로 가는 길’ 주제로

김태영 前 국방부장관 특강

본교는 4월 19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을 초청, ‘선진 국방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전 훈육위원 및 생도를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육사 29기로 입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년간 제42대 국방부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이 날 김 장관은 특강에서 우리군이 선진 국방을 하기 위해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들, 고쳐야 할 단점들을 제시하며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우리군이 ‘전투주의’의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사고 주의’의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군이 전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군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미래 육군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생도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

의 간성이 될 생도들에게 생도생활 간 자기를 갈고 닦는 보람찬 시간을

보내라며 생도들을 격려했다.

이승현 기자 c17265@kma.ac.kr

花郎臺動靜

간부 인사

▲ 4. 2 : 전임- 대위 박선영(화학교수)

▲ 4. 16 : 전임- 중위 김경민(생도대 인사장교)

▲ 4. 20 : 보직변경-대령 성인용(기획처장→행정부장 직무대리)

▲ 4. 25 : 전역- 대위 이현우(주규화박용범강봉균최충일(군의관))

▲ 4. 30 : 전역- 소령 권해영

▲ 5. 1 : 보직변경- 대령 성인용(행정부장 직무대리 → 행정부장)

주요 단신

▲ 4. 2 : '12년 학교자산 / 생도양성 비용 작성 육본 순회 교육

▲ 4. 3 : 식목일 내 나무 갖기 행

사. 학교장, 김경원 국공 지도감사에게 감사패 증정(접견실, 훈장 수여식(대령 이상갈이상철)

▲ 4. 4 : 식목일 행사 및 대청소

▲ 4. 5 : 육사-고대 친선 교류 행사

▲ 4. 8 : 취업 멘토 스쿨(5차).

전반기 전투병 생존법 집체교육(∼4. 10)

▲ 4. 9 : 전역병사 축하행사(학본 앞)

▲ 4. 12 : 학교장, 3·4학년 생도와의 대화

▲ 4. 13 : 클럽부서 생활체육대회 참가(유도부- 개인전 1위 1명, 3위 2명 / 럭비부- 4. 21, 청년부 3위)

▲ 4. 14 : 본교 생도 美 육사 전

술상향조치 경연대회 참가(∼24)

▲ 4. 15 : 1학기 중간시험(∼18)

▲ 4. 16 : 간부 정례신검(∼4. 18)

▲ 4. 17 : 학교장, 육사 교육발전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학본 회의실)

▲ 4. 19 : 준장 윤상호(행정부장)대령 정백기(무기공학교수) 전역식. 군사전문가 특강(김태영 前 국방부장관). 학교 교육심리학회 '13-2차 학술대회

▲ 4. 22 : 1학년 2주기 통합교육(∼6. 21). 간부 체력검정(∼9월)

▲ 4. 24 : 생도대장이취임식. 학교장, 판내 대학총장 건담회 참석

▲ 4. 26 : '이순신을 알자' 행사 - 이순신 생애 따라잡기(∼4. 28 / 부생도대장 등 28명 / 목표·진도·여수·통영), 도전 골든벨(4. 30), 국공대회(5. 8), 명인 쓰기 대회(5. 8), 독후감 공모(∼5. 10)

▲ 4. 29 : 근지단 유격훈련(∼5.

31). '13년 육본 예산 회계감사(∼5. 3)

▲ 4. 30 : 종합체력단련장 준공식. 테니스 대회

5월 주요행사

▲ 5. 1 : 제67주년 개교기념 행사, 서애관 준공식

▲ 5. 3 : '홍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 학교 방문

▲ 5. 5 : 노원구 어린이날 행사 지원

▲ 5. 8 : 판내 노인초청 위로행사

▲ 5. 9 : 이용문 장관배 승마대회(∼10)

▲ 5. 10 : 육사 제33기 입교 40주년 기념행사

▲ 5. 11 : 지역 입시설명회(11∼6. 2)

▲ 5. 15 : 역대 학교장 초청행사

▲ 5. 16 : 근무지원단 체육대회

▲ 5. 22 : 생도의 날(∼24)

사설

육사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의 의미

본교는 현 학교장(중앙 박남수) 취임 이후,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개혁, 안보위협 확대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생도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체계화하여 '육사(64) 정예장교 양성 아키텍처'를 재정립하였다.

육사(64) 정예장교 양성 아키텍처는 사관생도들이 육군의 5대 가치관 행동화에 필수적인 '6대 학습 중점'과 '4대 태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위국헌신하는 국가간성이자 '주도적 조직문제 해결형 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6대 학습 중점은 생도들이 제반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야 할 중점으로서 사명감과 가치관, 도덕성 및 윤리의식,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신체적 역량, 그리고 군사적 역량을 말하며, 4대 태도는 생도가 스스로 갖춰야 할 내면화된 태도로서 자기주도, 조직기여, 자기절제 그리고 관계인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부는 학위교육에서 효과적인 교수법 및 교육방법으로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인 생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시간과 학습자료 등 필요한 자원을 찾아 활용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며, 학습의 결과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다.

육사 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을 기조로 한 교수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사관생도들로 하여금 주도적 조직문제 해결형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교수방법이기 때문이다. 사관생도들은 장차 군의 리더로서 맡은 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자기주도학습 경험을 통해 주도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상황을 주도하며 조직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육사 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현대 지식기반정보화 사회와 불확실성 및 불안정이 더욱 증대되는 미래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효과적인 교수방법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리더가 될 생도들은 타인이 제공해주는 지식을 피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상황에 필요한 지식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생적인 학습능력을 구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자기주도학습이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따라서 교수 및 훈육요원들은 사관생도들이 교수학습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사관생도들은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학습목표를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며, 적절한 학습전략을 수립하고,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감으로써 '정예장교 양성 아키텍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관생도여!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교수가 되라

시론



윤상호
준장, 행정부장

언젠가 필자는 '군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라는 글을 국방일보에 기고한 적이 있다. 기고문에서 필자는 대한민국 젊은 남자의 가장 큰 고민이 군 입대라는 것과, 군 입대가 자기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2년 가까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대다수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군대가 그 어떤 대학보다 저력있는 최고의 명문대학이자 자기 인생을 살짜우는 곳이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대한민국의 군대는 이 세상 다른 어떤 대학에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 대학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면 3대(代)에 걸쳐 유효한 국가지도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군복무를 마침으로써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 나아가 미래의 자식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시군구의원 등 국가지도자가 되는데 하등 문제가 없도록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격증을 말한다.

둘째, 완전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성장하려면 부모의 도움이나 구속에서 그 청소년을 격려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님께 의존하는 젊은이들을 강제로 떼어내어 가장 뜨겁고 힘든 곳인 용광로에 담금질해 주는 곳이 바로 군대이다. 간부들과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대인관계를 배우고 처세술을 익히며,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책임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셋째, 자신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AAA-OH'형 인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Anytime, Anywhere, Anything, OK',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는 '하면 된다'는 군인정신과 강인한 내내심 등을 길러준다. 특히 군대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도 참아야 하고, 또 하기 싫은 일을 기꺼이 해야 하기도 한다. 이렇듯 젊은이들에게 고도의 내내심을 요구하는 곳이 군대이며, 이러한 육망의 결집 속에서 체득하는 내내심이 그들을 몇 단계 성숙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어른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넷째, 책임감있는 리더십을 배운다는 것이다. 녹색견장을 착용하는 순간 분대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소수의 분대원이지만 만행의 자격으로 그들을 통솔하

면서 인간관리 기술의 본질을 깨닫고 진정한 리더의 자질과 책임감을 구비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떠한 명문대학교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일본에서 한국을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병역을 팔하면서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보내는 2년 가까운 병역을 팔한다는 것은 남은 60~80년의 생을 더욱 행복하게 살기 위한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가 최고의 명문대라면 사관생도들도 입관 후 장병들을 교육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교수이자 리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학의 교수요원이라도 모두 명교수가 할 수는 없다. 14k, 18k, 24k순급이 있듯이 교수들에게도 순도가 있다. 이러한 순도는 교수들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노력하면서 생활하는냐에 따라 결정되며, 군 생활 초기에 모두 결정된다. 나중에 천천히 보다 높은 순도로 올려보겠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

군에서 명교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명리더가 되는 것이다. 리더십의 3대 요소가 리더, 팔로워, 상황이라면 이중 리더와 팔로워가 불변적 요소이고 상황이 가변적 요소이다.

먼저 리더와 팔로워라는 다소 불변적 요소의 변화를 위해 필자의 36년 군 경험을 통해 후배 사관생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직하고 진솔하라', '불광불급의 열정을 가져라', '기분과 원칙에 충실하라', '존중과 배려의 리더십을 가져라', '항시 미소를 잃지 마라' 등이다.

화랑대 단상



서범기
소령, 4중대 훈육관

백마고지와 전사연구

고 전사를 연구하지 않았기에 매년 후회하고 있다. 생도들이 전쟁사를 배우고 그 중요성을 느끼는 순간부터 성숙된 군인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훈육관이면서 선배장교로서 평소 생각했던 전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강조하고 싶다.

첫 번째, 전사연구를 통해 사관생도들은 군사지식을 함양하고, 간접 전투경험을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군사적 반응력을 체득하고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현장도 보답사, 전사연구를 통해 얻은 감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지휘관 패튼 장군은 라인강을 건너 뮌헨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정

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시기와 장소에서 부대를 정지시키고 전술적으로 이동시키는 군사적 반응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노먼 슈워츠코프 대장이 베트남전 참전 시 군사적 천재라고 수차례 언급한 베트남군 지휘관 응응광썬의 대령의 작전 계획 및 실시 능력도 기원전 217년 한니발 장군의 트라시메네호 전투와 같은 평소의 전사연구에 대한 결과물이었다.

두 번째로, 미래의 전쟁을 예측하고, 유사시 전사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 러일전쟁 시 도고헤이 아치로가 지휘하는 일본 연합함대의 작전참모 아키야마 사네유키(秋山眞之)가 여순항에

이를 충실히 행한다면 리더와 팔로워 간에 상호 대립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시 미소를 잃지 말라는 것이다. 팔로워에게 큰소리치고 인상을 쓰면서 지휘하는 것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실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다고 본다. 즉 웃음을 잃지 않아야 리더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다음은 가변적 요소인 상황에 대한 조치능력을 위해 조언하고자 한다. 리더 스스로가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 보거나 팔로워 중에서 특정한 상황에 대한 경험자가 있다면 리더의 올바른 역할과 상황조치 방향설정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모든 실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간접경험에 있어서 제일은 해당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멘토를 모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관련된 시범 및 세미나에 참가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것이다.

현재 육사는 위국헌신의 국가간성을 양성하기 위해 생도교육 아키텍처를 재정립하고 최고의 명리더인 '주도적 조직문제 해결형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생도들이 올바른 사명감과 가치관을 견지한 가운데,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 맡은 바 본분에 열정을 다한다면, 최고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고 한다. 또 맥아더 장군의 '나이는 얼굴을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이 없으면 인생을 주름지게 만든다'라고 하였듯이 명교수가 되는 것은 부단한 자아발전의 열정과 노력이 없으면 힘들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교수가 되고자 하는 사관생도여! 불광불급의 열정을 기대한다.

서 러시아 함대를 고립시킬 수 있었던 것도 미국과 스페인의 산티아고 해전을 참관하고 이를 연구한 결과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이라크 전쟁 당시 토미 프랭크스 중부군 사령관은 작전계획 수립 시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시가전, 베트남전, 걸프전 및 아프간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초기 이라크전에 대한 계획수립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사연구를 통해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대처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영국과의 군사동맹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와 주변국의 역학관계 분석을 통해 한미동맹의 방향과 활용방안을 예측할 수 있고, 최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외교적인 변화에 맞추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

나는 아직도 가용 시간의 대부분을 전쟁사를 포함한 역사서적 탐독에 투자한다. 사실 나 또한 생도시절에 지금과 같이 전사연구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사관생도들은 전사연구를 통해 생도시절에 학습해야 할 군사적 역량과 지적 역량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장차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관생도들이 전사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군사적 천재를 꿈꾸는 이가 많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 싶다.

육사만평



그림 전병욱

‘작은 정성으로 큰 힘을’

1:1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1인이 1개월에 1구좌씩 자동이체)

특별출연하신 분(100만원 이상)			
◆ 동문	기수	출연구좌(누계)	
박준병	127기	1,000(1,100)	
안광찬	257기	200(300)	
문영한	287기	102(1,144)	
이해관	387기	200(800)	
김 수	687기	102(126)	
◆ 학부모			
류근세(70기 류준열)		105(580)	
◆ 독지가			
윤형석		100(100)	
◆ 비동문단체			
육사학부모모임		1,000(2,000)	

일반출연하신 분(5구좌 이상)

◆ 동문	성명	기수	출연구좌(누계)
	장기호	생도27기	10(1,280)
	장정열	생도27기	10(600)

허길	생도27기	10(50)	서만식	27기	5(280)
이근양	37기	10(330)	권영길	29기	20(40)
김동순	87기	5(115)	김원곤	30기	10(230)
김병시	107기	20(25)	이승우	30기	30(210)
정호용	117기	5(1,655)	경창호	32기	10(187)
류재호	137기	5(180)	김영득	32기	10(110)
윤찬중	137기	5(40)	백병기	32기	10(150)
김두원	147기	10(110)	유명석	32기	5(260)
이금세	157기	20(40)	이완석	32기	10(10)
김삼진	177기	10(621)	임관빈	32기	5(1,300)
김진영	177기	10(1,230)	전홍기	32기	5(145)
박재화	177기	20(661)	정백기	32기	50(550)
안만조	177기	8(80)	조승연	32기	10(80)
이문석	177기	10(340)	권혁순	34기	5(200)
구창희	187기	10(150)	전동은	35기	50(136)
성환욱	187기	10(530)	안현석	39기	50(109)
여관술	187기	20(100)	오경두	39기	10(500)
김택수	197기	5(35)	정양선	39기	5(615)
유춘수	197기	10(290)	김원일	40기	33(35)
유정갑	207기	5(235)	박현근	40기	5(72)
박순찬	217기	5(88)	오명호	40기	22(490)
임덕구	227기	30(570)	문만재	42기	20(25)
류해근	267기	10(2,790)	신병근	42기	5(115)
현광호	267기	5(1,095)	장준근	42기	10(20)

육사발전기금 출연 내역

◆ 기간: '13. 3. 13 ~ 4. 10 ◆ 1구좌: 10,000원



김진영 이사장(왼쪽 첫 번째)이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이사회 후 장학금 수여자와 기념촬영을 했다.

육사발전기금 계좌번호	
국민	073001-04-104244
농협	989-01-002328
신한	100-024-219930
우리	1005-401-284476
하나	123-910004-08505

발전기금 출연 후 사무국으로 꼭 연락주세요.

미래 안보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 조직문제 해결형 리더’ 양성

육사 교육의 최고 가치는 위국헌신을 최고의 명예로 아는 사명감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

학교장, KTV 정책플러스 대담 내용(전문)

▶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튼튼한 안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역 장성으로서, 또 군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책임자로서, 최근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 네, 북한의 도발위협이 연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죠. 한마디로 한여름밤의 불나방과 같은 형태라고 봅니다. 자기가 언제 불에 타 죽을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 군은 어떤 적의 도발에도 단연코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최소의 피해로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 도발대응 이전에 적의 도발역제이죠. 우리 군의 모든 대비태세는 궁극적으로 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입니다.

▶ 육군사관학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요, 학교장님께서 직접 육군사관학교는 이런 곳이라고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 네, 잘 아시겠지만, 육사는 서울의 동북방 태릉 화랑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군사력은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즉 서단대에서 나오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방위의 힘은 바로 한국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서울 태릉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육사는 국가가 부르면 언제 어디든지 바로 달려나가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위국헌신의 리더’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1946년 조선경비사관학교로 개교한 이래, 약 1만 9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 육사 졸업생은 대한민국 방위의 중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졸업생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서 뛰어난 지도자로 활동하여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에도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지난 2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을 저희 KTV에서 방송하기도 했었는데요. 여생도가 수석졸업자로 선정됐더라고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여생도가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이의 예상과는 달리 그처럼 여생도가 좋은 성과를 올리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 네, 2년 연속 여생도가 수석 졸업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체력과 정신력 면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을 터인데, 고도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육사에서 2년 연속 여생도 수석졸업이 관심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육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육사 교육시스템에서는 남녀 구분없이 누구나 최선을 다한 생도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주희 생도를 면담해 보니, 갈망했던 육군사관학교를 예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대장 생도가 2명이 있는데, 그중 선임 1대대장 생도가 여생도입니다. 페르디드 시에 선임 1대대장 생도의 구령에 천여명의 남녀생도가 동시에 방향 전환을 하는데, 그 생도의 구령이 아주 힘듭니다. 육사는 실력만 갖추면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여생도는 남생도와 함께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앞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현재 육사에는 약 100여 명의 여생도가 남생도와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생도 생활이라 해서 남생도와의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군사훈련을 받을 때 완전군장 배낭의 무게 차이라든지, 체력 검정 시 남녀 생도의 상이한 기준 등과 같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물리적,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생도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남녀생도들은 서로를 이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훈련을 함께한 동기·동료로 인식하며 다같이 교육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차이점을 인정하고 동기로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학위과정도 동일하게 이수하며, 생활관은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식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1월, 육군사관학교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학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육군사관학교의 인재상은 어떤 것인가요?

＝ 교육은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합니다.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변화입니다. 북한은 과거 전차와 장사정포로 위협을 해왔으나, 지금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듯이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변화를 예측하면서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변화 추세를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리더입니다.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민의식 수준 변화로 군에 대한 인식과 요구 수준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하면서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에 최우선을 두면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빠른 시간 내 최소의 피해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을 빈틈없이 구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군 내부의 변화입니다. 2015년 전작권을 인수하게 되어 있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도들은 앞으로 규모는 줄어дна 첨단 과학화된 군을 한 군의 주도로 끌고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잘 관리해 나가면서, 더욱 강력한 국방태세를 만들어 나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미래의 안보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미래의 리더들은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육사는 위국헌신의 정예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새로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아키텍처 완성 단계이며, 서브 아키텍처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6가지 역량과 4가지 태도 구비에 주안을 두고 리더십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사 교육 최고의 가치는 위국헌신을 최고의 명예로 아는 사명감과 가치관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도덕성·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지적·군사적·신체적·사회적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사관학교의 모든 교육의 초점은 이 6가지 역량 구비에 맞추어져 있고, 생도는 스스로 내면적인 자기주도, 조직 기여, 자기절제, 관계인식의 4가지 태도를 구비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생도교육과 훈육체계 등이 여기에 맞추어져 있고, 생도 자신이 자기절제와 자기 계발 속에서 조직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의 능력을 구비해 나가도록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흔히,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하면 ‘군 지휘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군 지휘관뿐만 아니라 국방분야 연구원, 국제외교 전문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졸업생들의 진로가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소개해주세요신다면?

＝ 일반적으로, 육사를 졸업하면 20~30년간 지휘관, 참모로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의무복무 10년간 군 복무하고 5년 차에 본인이 원하면 전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군의관·법무관·교수·방산분야 등 특수분야 전문가도 될 수 있으며, 국제협상·국제협력·군사외교를 담당하는 군사분야 국제전문가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육사는 그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사출신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조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사명감이 뛰어나고 가치관이 분명하며, 조직에 대한 집중도 등 리더십이 아주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어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이나 대기업에서 CEO, 임원으로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 그만큼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겠죠?

＝ 육사 교육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생도들을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 인원이 졸업 즉시 장교로 임관하는데, 장교는 그 어느 경우에도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하가 있게 되어 있고, 동료와 상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조직에 부여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리더십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훈련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더로서 문제 해결의 지혜를 깨우치기 위한 일반대학의 교양 및 전공 과정에 해당하는 교수부 대학과정과, 군사전문 리더로서의 자질 구비를 위한 실전 리더십 함양과 군사훈련, 그리고 체육학을 위해 전 생도가 생도관에 편성되어 4년간 동고동락하는 생도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생도들은 교수부 대학과정에서, 일반대학처럼 일반학기 중에는 교양 및 전공과목 수업을 듣게 되며, 매년 여름에는 군사훈련을 6~7주가량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리더십 집중 실전 함양이나 영어활용능력 구비를 위한 별도의 집중교육기간을 편성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4년의 교육과정 동안 생도들은 학위교육 149학점, 군사학 및 군사훈련 포함 총 197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시 전공별 학사 학위와 군사학사의 2개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세계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80여 명의 교수를 비롯해 170여 명의 우수한 교수진이 있습니다. 교수 1명당 생도 6명의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교수와 생도 간 1:1 밀착교육과 심도 있는 토의식 수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 핵심인재로서의 교육 외에도 사관생도들의 리더십과 인생 함양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요?

＝ 기본적으로 사관학교의 모든 시스템은 생도의 리더십 함양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전공학위 과정도 궁극적으로 군의 리더로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이고, 군사학, 체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관학교와 일반대학의 큰 차이입니다. 즉 모든 육사 교육이 생도로 하여금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방향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배운 것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4년간 체계적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지휘 근무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배양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인성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측면이 있겠

으나, 육사에서는 리더로서 조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인성함양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생도들은 도덕적 윤리적 바탕 위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소통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하여 관계 속에서 더불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태도와 능력을 갖추어 나갑니다.

이를 위해 생도 3학년 글로벌 전사연구 여행시 생도들은 6·25전쟁 참전국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학기 중에는 연 4회 이상 사회시설 및 급속·학습 봉사활동을 체험하고 있는 등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사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들과 멘토링을 통해 진로와 학습활동을 조언하는 등 다양한 인성함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입학 경쟁도 치열하고, 또 그만큼 까다롭고 공정한 입시 전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육사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입시 전형을 소개해 주신다면? 또, 육사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 육사는 위국헌신의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입니다. 따라서 생도선발은 장차 장교로 가져야 할 리더십의 핵심인 지적능력과 인성 및 올바른 가치관, 강인한 체력, 심리적 건강 등과 자기 주도적 자세, 조직인식, 관계인식, 자기 절제 등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지원자를 공정하고 다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영·수 학과 시험과 수능시험뿐 아니라 1박 2일 동안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고한 사명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리더로서의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신체적·잠재력 등 리더십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역량을 지닌 인재라 할 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 폭넓은 지식과 더불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튼튼한 안보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군을 이끌어가는 육사 출신의 리더십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사에게 부여된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의 어떠한 안보상황 변화에도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직문제 해결형 리더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상의 복지는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 사관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시를 읽는 즐거움 ■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1952~)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앓이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시는 필자가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내 연구실에 드나들거나, 앞을 지나다니는 생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출입문에 코팅하여 붙여두었던 작품이다. 나는 그렇게 삶을 버거워하는 생도들이 연구실에 들어오면, 다과를 나누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려주어 다시 생활에 대한 활력과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들을 기다리곤 했다.

이 시에서는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시적 화자의 심리적 정서적 변화를 섬세하게 추적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적이고 보편적 정서인 ‘기다림’의 시적 형상화에 성공하고 있다. 읽고 난 후 시적 울림이 큰 이유는 대상이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지 않고, 오지 않는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으로의 전환에 있다.

이 시를 읽으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소개로 일면식도 없었던 지금의 아내를 처음으로 만났던 40여 년 전의 일이 생각난다. 약속 장소였던 종로의 크라운제과 지하 다방에 먼저 가서, 출입구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발도 하고, 복장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내 판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나간 자리였다. 종업원이 가져다준 보리차를 훌쩍이며 어떤 여자 일지를 즐겁게 상상하며 기다렸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금씩 초조해지며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때 다방 출입문을 응시하던 내 심리가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여자가 ‘너였다가 /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다시 문이 닫힌다’였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초조하게 한 시간씩이나 기다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무슨 수명같이 여겨진다. 그때 내가 오기로라도 버티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는 행운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다림 대상이 있는 삶은 곧 희망이 있는 삶이다. 기다림은 삶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본질적 요소이다. 시에서처럼 대상을 초조하게 앉아서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꿈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

다’를 음미할수록 기다림에 대한 진실이 더 강

렬하게 느껴진다.

김 종 윤

육사 27기, 명예교수

육사 안의 퇴계와 서애

알 수가 없었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학교 홈페이지와 육학모 카페를 드나들며 혹시 아들 얼굴이 있나 싶어 숨은 그림 찾듯이 애쓰던 그 시절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입학하고 곧장 터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마음 졸이며 지냈던 그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딸이 친형제만큼이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육학모 선·후배님들과의 만남은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다. 입시설명회와 입학시험장 봉사, 생도의 날과 화랑대 관광 등 학교 행사에 참여하느라 아들이 바쁘게 생도 생활에 적응하는 만큼 저도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1학년 때는 저도 1학년처럼 긴장된 생활이었고 아들이 4학년인 지금 제 마음도 4학년이 되었습니다. 기초군사훈련 때 처음 배웠다는 ‘신독’과 생도들의 체육시설인 서애관과 연관된 역사 속의 퇴계와 서애를 생각하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신독과 서애관이라…….

신독은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 행동을

하되마를 부응대 언덕에 자리 잡은 옥연정사에서 징비록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임금이 조선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목숨 건 직언도 서슴지 않았던 서애의 참충성심과 주인정신은 오늘날 서애관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자리 잡고, 서애류성통함으로 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독과 징비 정신으로 생활하는 생도 여러분!

오늘도 스승인 퇴계와 그의 애제자인 서애는 생도 여러분에게 뭔가의 가르침을 주려고 화랑대 서애관에서 토론하고 계시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란히 화랑대를 거닐며 참군언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참혹하게 웃고 계시 수도 있습니다.

을 여름방학 때는 도산서원(사적 제170호)에서 퇴계를 만나보고 화희마을을 둘러 서애의 숨결을 느껴보고 서애의 위패가 모셔진 서원 중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병산서원(사적 제260호)에 둘러 시공을 뛰어넘은 무언의 대화를 해 보심은 어떨는지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생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하는 육사교정 안에 퇴계와 서애가 계시다는 것을 상기하고 500년 스승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생도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육군사관학교장님 이하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군사관학교 파이팅!

이순신 장군 생애 따라잡기

부생도대장(대령 박창성)이 인솔한 본교 생도 23명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순신 생애 따라잡기' 행사에 참가해 진도·여수·통영 일대 전적지를 답사했다. 생도들은 목표의 고하도, 진도 일대 우수영, 울돌목, 여수 일대 진남관, 무술목, 그리고 통영 일대 한산도 제승당 등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충무공의 우국충정 가르침을 피부로 느끼며 그분의 자세를 본

받아 내·외적으로 성숙한 장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행사에 참가한 4학년 전병욱 생도는 "내가 밝는 땅마다 장군님의 발자욱이 서려 있었고, 그 발자욱을 따라 밝는 내 발이 너무나도 작아,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얼굴이 뜨거웠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는 조국과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무공의 기운이 남아 있어서 내 발바닥을 타고 스며



이순신 장군을 알자

본교에서는 제468회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맞이하여, 사관생도들이 이순신 장군을 참군인의 롤모델로서 알아가기 위한 '봄' 조성을 위해 이순신 장군 생애 따라잡기(4. 26~4. 28), 도전 골든벨(4. 30), 국군대회(5. 8), 명언 쓰기 대회(5. 8), 독후감 공모(~5. 10) 등의 행사를 펼치고 있다. 그중 이순신 생애 따라잡기와 도전 골든벨 행사를 소개한다.

저 올라오는 듯했다. 지금까지의 내 생활을 되돌아보며 걸으니, 장군님의 드넓은 충정에 한없이 부끄럽기만 했다. 지금까지의 안일했던 마음과 나 자신만을 위했던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될 군인으로서 우국충정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 장군님의 뒤를 따라 걸었다"고 말했다.

4학년 권오준 생도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 업적을 따라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며, 이제 그를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야 학교장님께서 왜 '이순신'을 강조하시는지 알 것 같다. 어느샌가 그는 나의 '롤모델'이 되어 버렸다. 남은 생도생활 동안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닮기 위해, 모방하기 위해 하루하루 정진해 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3학년 김세현 생도는 "그분이 서서 바라보시고 느껴셨던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성웅 이순신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님을 내 평생 군 생활을 하면서 항상 따라가야 하는 인생의 멘토로 삼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4월 30일, 본교 을지강당에서 전 생도가 참석한 가운데 충무공 이순신을 주제로 한 골든벨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생도대에서 계획해 시행한 행사로서, 1등 상품으로 학교장 표창과 상금이 내걸렸다. 행사 시작 보고를 기점으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는 생도대 8개 중대에서 소대별로 단상에 올라가는 팀 2명, 방청객 팀 2명으로 구성되었고, 난중일기와 이순신에 관한 일반상식에 대한 30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문제는 사건/인물/시간/지명/기타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었다. 또한, 난이도별로 10점~60점까지 나누어져 있어서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몇 가지 문제 수준을 살펴보면, 쉬운 문제는 3대 대첩의 이름을 묻는 문제에서부터, 어려운 문제로는 난중일기를 구성구석 읽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로 '산에서 양을 치다'가 일본군의 침입을 알려 준 목동의 이름'을 쓰는 것도 있었다.

이날 영예의 우승은 6중대 2소대가 차지하여 학교장상을 수상했다. 6중대 2소대가 1등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한 4학년 김동현 생도는 "이순신 장군을 둘러싼 배경, 상황

도전 골든벨 '왜 이순신인가?'

사건 하나하나를 열심히 본 것이 도움됐고, 그것들을 알고 나니 난중일기의 내용도 더 깊게 이해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3학년 윤정훈 생도는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시간별, 인물별, 해전별, 사건별, 기타 등으로 분류해서 공부하였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기본 좋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주최 측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해설을 풍부한 사진자료와 설명을 통해

전 생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대회를 계기로 전 생도는 성웅 이순신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생애와 전투에서의 승리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군인의 롤모델로서 충무공 이순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임민섭 기자 c17285@km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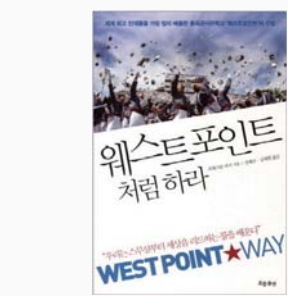
을지강당에서 열린 도전 골든벨의 열기 넘치는 모습.

서평 - 《웨스트포인트처럼 하라》

프레스턴 피시 지음 · 강해구 · 강예원 옮김
흐름출판 · 309쪽

‘규율’ 속의 ‘창조’는 더 강력해

지난여름 지인의 부탁으로 이 책을 소개받고, 번역작업 중 군사 용어에 대한 감수를 부탁받았다. 이 책의 원제는 (미 육사생도의 일기)인데 생도생활의 특수성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인은 원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육사를 졸업한 본인에게 번역 감수를 부탁한 것이다. 작업 도중 오래전 나의 사관생도 시절이 떠올라 추억에 젖기도 하였고, 각 장(章)에서 정리된 리더십 노트를 통해 '왜 육사교육이 우수한지' 평소 애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웨스트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미 육군사관학교는 세계 최고의 인재



하고 있다. 이러한 때 왜 하필 육군사관학교의 교육을 이야기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창조적 사고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지, 규율과 규칙을 강조하는 문화는 창의력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육군사관학교의 문화는 틀에 박힌 경직성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 사고의 힘을 배가하는 균형과 질서다. 그리고 그것은 균형과 질서에 기반을 둔 창조성이야말로 더욱 파워풀한 법이다. 실제로 미 육군사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하고 기발한 과제들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공간에 놓인 기본 윤리와 태도, 팀워크, 효율성, 목표 설정 및 추진 노하우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의 교육 내용은 직업과 입장, 성별을 막론하고 장차 '리더'로 성장하고픈 사람들에게 필수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는 지난 2003년에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어엿한 기업의 CEO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의 흥미와 몰입을 높이기 위해 저자의 사관생도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특정 에피소드 12개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각 장마다 말미에 '리더의 노트'라는 이름으로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어 유익하다. 2013년 새 정부에 많은 육사동문이 정치, 외교, 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발탁되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왜 육사교육이 주목받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박 기 철
소령, 육사 53기

생도 독후감

당신은 영웅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충무공 이순신》

조성도 지음 · 연경문화사 · 378쪽

전쟁에서 승리를 한 장군은 수없이 많으나 인생에서 성공한 장군은 그리 많지 않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다. 일생을 자기 수양과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살아왔고, 항상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전쟁사를 보면 그는 항상 신중했고 조심스러웠다. 혹자는 '이순신 장군은 이길 수 있는 전쟁만을 해서 영웅이 되었다'며 폄하했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그의

치밀한 탐색과 연구에서 얻어진 승리였다. 그는 전쟁 초기 아군의 해군 전력의 몇 척 안 되는 선박과 조종해 없 는 재래식 무기만을 가졌음에도 항상 최후선을 띄워 적의 동태와 흐름을 파악했으며, 적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전술로 승기를 잡았다. 초임 무관시절부터 모든 일을 성실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철저함이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밑바탕이 된 것이다.

장군은 거사 전에 신기하게도 전쟁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장군의 전쟁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전쟁 동안 발생한 난민들을 구제하는 데도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제도적인 난민구제책으로 둔전 설치



체첸의 비극적 참상 고발

《더러운 전쟁》

안나 폴릿콥스카야 지음 · 주형일 옮김
이후출판 · 267쪽

2006년 10월 7일, 한 아파트 입구에서 총성이 울렸다. 피격을 받은 이는 바로 안나 폴릿콥스카야이다. 그녀는 푸틴 치하에서 회생당한 사람들을 대변하여 끊임없이 부정부패를 깨내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러시아 정부에 의해 피살당하였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녀의 의지와 신념은 그녀의 책을 통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녀는 체첸 지방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난민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체첸이 지니지 않는 폭력, 전쟁 내내 자행된 인종 청소, 그리고 약탈……. 난민들에게는 러시아 군 뿐 아니라, 체첸 반군 모두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다.

인나는 이 모든 참상, 그리고 이러한 지옥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하는 몇몇의 사람들을 책에 기록하였다. 이 책을 통해 체첸의 비극적인 모습, 전쟁의 참상, 그리고 그녀의 목숨과도 맞바꾼 기자정신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박찬중 기자 c17202@kma.ac.kr

이성과 감성으로 과학과 예술을 통섭하다

《미술관에 간 화학자》

전창립 지음
어바웃어북출판 · 376쪽

이 책은 세계의 저명한 미술작품 속에 담겨진 과학적 상식을 설명해주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에이크, 밀레 등과 같은 저명한 외국 화가들의 작품부터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 등 우리나라의 저명한 화가들의 작품들까지 동서양의 작품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본 도서에서는 평면 캔버스에 3D를 재현한 것, 에이코란의 속세한 붓 터치와 비법에 대한 화학적 관찰 등 우리가 지금까지 작품을 감상하며 놓쳤던 예술 속의 과학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현재 홍익대학교 바이오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학 시절에도 화학 실험실보다 미술관 가는 것을 더 선호했던 그는 현재 《화학세계》와 《한림원소식》등의 과학 저널에 미술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다. 그는 명화는 과학적 창의력이 있기에 빛나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작품들을 과학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미술의 태생을 화학에서 찾으면서, 예술과 과학의 접점을 가장 잘 다룬 도서로 평가받고 있다. 최정일 기자 c17329@kma.ac.kr



전략은 발전하고 움직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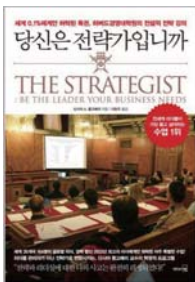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신시아 A. 몽고메리 지음 · 이현주 옮김
리더스북출판 · 319쪽

이 책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신시아 A. 몽고메리는 리더를 관리자가 아닌 전략가로 정의하며 리더들에게 전략가가 되도록 목표를 잡고 강의를 진행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전략'이란 고정되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전략가'인 리더는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공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몽고메리 교수는 무슨 '전략'이 좋은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짜는 '전략가'가 되는 법을 가르친다.

미래의 군을 이끌어 갈 사관생도들, 이 책을 읽어보고 자신이 어떠한 전략을 짜는 리더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볼만 하다. 책의 내용처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군을 이끌어 갈 미래 정예장교가 될 생도에게 리더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승현 기자 c17265@kma.ac.kr



군대생활의 노하우를 상세하게 알려줘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 군대에서 배운다》

민찬규(육사 39기) 지음
시간의 물레 · 277쪽

군 생활은 '대한민국 남자'에게 있어 중요한 경험이며,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기간이다. 군 생활은 인생에서 단절된 기간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이다. 이 책은 인생의 보물을 군대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자기계발에 대한 노하우를 현역 대령이 자신과 병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알려주고 있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군 생활에 대한 부담과 해결책, 징병검사, 입대 준비물, 신병교육대 생활 등 입대 초기에 꼭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어 자신감을 갖고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군 생활 간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군 생활에 대한 목표 설정, 자기계발 시간과 장소, 군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 등의 내용을 다루어 군 생활이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는 비법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와 미래의 간부들에게는 병사들이 생각하는 군대와 군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경험담을 제공해 부하들을 지도하는 참고서 역할도 하고 있다. 최재훈 기자 c17328@kma.ac.kr



아도 한마디

칼에 비취지는 책임

예로부터 장수(將帥)는 왕으로부터 칼을 받았다. 칼은 적을 쓰러뜨리지만, 장수가 칼을 휘두르면 군무가 움직이고, 군무를 움직이면 적들을 섬멸해 국가를 수호했다고 한다. 때문에 그 칼에 수많은 장병의 목숨을 담고 있고, 나아가 조국의 안위가 달려있다 보니 엄청난 책임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우리 70기 4학년 생도들은 학교장님으로부터 '지인용도(智仁勇刀)'를 받았다. 이제 장교의 길로 발을 내딛는, 그리고 생도대에서 가장 최고의 학년인 우리 4학년생도들에게 주어진 이 칼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

는 것일까. 앞서 말한 허리에 찬 이 무거운 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리고 그 무게가 어깨까지 전해져 온 몸에 느껴지는 그것은 무엇일까.

칼을 뽑고 서 있으면 칼날에 우리 얼굴이 비취지게 된다. 이 칼은 그 옛날 장수의 칼처럼 권위를 의미한다고, 또 그만한 책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반짝이는 칼에 비취지는 우리의 얼굴은 책임 그 자체임을 깨닫고,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더 이상 준비가 아니라, 완성에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 손에 쥐고 칼에 당당히 얼굴을 비출 수 있는 70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지윤(4학년, 응용화학)

가까울수록 더 소중히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날씨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도 풀린다. 새 학기를 맞아 여기저기서 사람 만나기, 인간관계 맺기에 한창이다. 너도나도 새로 들어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혹시 자기가 아는 얼굴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살피기에 바쁘다.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은 MT(Membership Training), 신입생 환영회, 과 단결활동 등 친목도모를 위해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을 무렵, 문득 찾아오는 고독감에 마

음 한결이 서늘할 때가 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자기가 잘 하고는 있는지, 마음 속에 고민이 있는데 털어놓을 사람은 없는 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가족이나 동네 친구, 단짝친구 등 오래된 인연들이다. 그들은 나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으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연을 찾기에 앞서, 오래된 소중한 인연들에게 소홀하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도 모르게 연락이 뜸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상대방 역시 반가워하고 좋아하며 호응해 줄 것이다.

임민섭(3학년, 일본 지역연구)



동반자

생도생활을 하면서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기초군사훈련 때부터 회로애락을 함께 나눈 '동기'일 것이다. 육사에 처음 입교해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기초교육을 받을 때, 서로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동기였고, 1학년 시절 상급생도가 외박을 나간 주말, 밤새 대화하고 함께했던 사람도 동기였다.

동기는 나에게 새롭고 특별한 존재다. 입교하기 이전까지 '동기'라는 단어를 써 본 기억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라는 말보다 동기라는 말이 더욱 익숙하다. 동기를 친구

라고 부르기엔 왠지 이상하게 느껴진다. 또 고등학교 친구에게 동기라는 말을 쓰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진다. 친구와는 다른 동기라는 새로운 존재가 형성된 것이다. 동기는 존재는 친구와는 달리 생도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추억과 즐거웠던 순간을 함께 나눈 특별한 사람이다. 오직 생도생활을 함께해 본 사람만이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깝고, 강한 전우애를 느낄 수 있는 관계인 것이다.

동기 간에 좋은 인연은 더욱 좋게, 나쁜 인연은 다시 좋은 방향으로 바뀌 영원히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자!

도현우(2학년, 기계공학)

월드리포트 - 터키 방문 소감문

‘형제의 나라 터키’를 다녀와서



안 대은
4학년, 경영학

6·25 전쟁 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 터키.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여전히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터키와 한국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나라에 ‘사관학교 교환 방문’의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다. 그 곳에서 알게 된 사실과 경험한 것을 생도들과 나눠 보고 싶다.

처음 터키 사관학교에 도착해서 가장 놀랐던 점은 우리와 다른 각종 군대제도와 그들이 손님을 대하는 친절함 태도였다. 터키에서는 한 해 약 1,000명 정도의 장교가 임관하는데, 대다수의 장교는 터키사관학교 출신이며 나머지는 대학 졸업자 중 단기 훈련을 받고 임관한 계약직 장교다. 또한 터키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많은 생도가 물레리 고등학교라는 군사고등학교에서 5년간의 교육을 이수한다. 그리고 사관학교 졸업 이후 1년간의 병과교육, 3년간의 소위생활을 한 후 무려 6년 간의 중위 생활을 하게 된다. 이처럼 초급장교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터키사관학교에서는 생도를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로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생도에게 리더십과 지휘기술을 강조한다. 자체적인 지휘군부 활동은 우리보다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사관학교 때부터 모든 체계가 야전형으로 편성되어 있

다.

그리고 터키 사관학교는 4연대 24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각 연대마다 한 학년씩 생활하게 하는 ‘학년 제대 편성’을 하고 있어서 육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 기수끼리 단합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일반학 수업을 공간 없이 모두 오전 중으로 편성을 하고 오후 시간은 주차별로 군사훈련, 특별활동,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또한 터키인은 그들이 국부로 생각하는 아타튀르크의 동상이나 사진을 곳곳에 두면서, 그의 애국정신이나 용기를 일반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린다. 이 때문인지 터키에서는 군인의 위상과 자긍심이 매우 높고 군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매우 좋은 편이었다.

아쉽게도 1주일간의 방문도 끝나고 터키생도에게 그동안의 환대에 정말 고맙다고 꼭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또한 참 감동적이었다. “당신은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꼭 놀러가겠습니다.” 참으로 명언이 아닐 수 없다.

三 禁 地 帶

- ▲ **벚꽃 엔딩**
벚꽃이 만개한 화랑대. 어렵듯이 떠오르는 제설의 추억. “저 꽃의 만연은 아름다우나, 그 끝은 누군가의 고통이라!”
- ▲ **작별의 시간**
중간시험이 끝나고 1학년이 떠나면 해공사 1학년이 옵니다. 4학년: “우리 1학년이 떠나면 무슨 낙으로 살까.” 3학년: “교육해야겠다.” 2학년: “...^^... 힘내 애들아.” 1학년: “우와! 핸드폰! 외박!”
- ▲ **부재중 통화**
수요일이 지나고 핸드폰을 돌려받았다. 부재중 통화가 3건이나 와 있었다. 하나는 이미숙 탐장님.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여동생. 그래도 세 건 중 두 건은

- 여자다.
- ▲ **항기 3**
1. 날은 점점 더워지고 맑은 흐르는데 매일 입어야 하는 전투복 항기. 2. 검열 동안 호실과는 다르게 쓰레기로 가득한 체육복 주머니 항기. 3. 자주 입는 옷이 아니라 매번 빨기 애매한 대권도복 항기.
- ▲ **우리의 톨모텔**
당신의 톨모텔은 누구인가? 생도들은 말할 것이다. 이.순.신.장.군! 특히 최근에는 더.....
- ▲ **BYE**
육사 1학년들이 이제는 BYE, 해사 가는 1학년들이 너의 즐거움은 BYE.

- 공사 가는 1학년들이 너의 마음고생은 BYE, 육사 남는 1학년들이 생활이 편할 거라는 생각 BYE, WHY? 해사 공사 1학년 쟁겨주느라 너의 정신이 BYE.
- ▲ **순찰의 경로**
순찰이 시작된다. 하지만 간단하게 갈수 있는 길을 우린 가질 못한다. 가질 못한다...멀리 돌아간다.
- ▲ **족구대회**
중대 내 분대대항 족구대회. 명명이발을 갖고 있지만 1학년에 이름 멋진 2학년이 되고 싶었다. 공을 향해 날았지만 신발도 날고 내 이 미지도 같이 날았다.



육군박물관



강제구 소령 동상



육사기념관



교훈탑의 졸업생 명단



벤플리트 장군 동상



야외 무기전시장



국민과 함께하는 육군사관학교
안보교육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교 방문 안내
<http://www.kma.ac.kr>
출) 학교 소개) 학교 방문 안내) 학교 관광

봄날, 사소하나 아름다운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과 풋풋함. 흐드러지는 벚꽃과 수많은 꽃이 만개하는 화랑대에서는 1학년 생도들의 미팅이 한창이다. 상급생도가 마련해준 1학년의 미팅은 빵집에서, 카페에서, 간성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학년의 미팅을 보고 있으면 나의 1학년 때가 생각이 난다.

“기법아! 너 미팅나가라.”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3학년의 눈치를 보면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던 4학년 생도가 내게 말했다. 물론 1학년에게 말 대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1학년의 모토는 복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명령’에 의해 토요일 14시에 미팅을 나가게 됐다. 육사의 미팅은 다른 곳에서의 미팅과 매우 다르다. 빵집에서 서울여대에서 학생들이 육사 빵이라고 부르는 빵을 먹으며 미팅을 하게 된다. 마치 아버지 세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당시 나에게 1년 넘게 사귀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사회생활의 일부분이라는 또 군인은 병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며 나갔다.

기대 반 설렘 반 그리고 알 수 없는 두근거림과 함께 빵집에 앉아 우리의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빵집의 문을 열고 그녀들이 왔다. 당당한 걸음걸이, 빵집을 가득 채운 만화그녀들의 미소, 어색하고 부끄러운 미팅이 끝나고 간성문에서 그녀들을 돌려보내는 그 순간, 한 여자아이 가 내게 메일주소를 물어봤다. 기뻐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난감해하다가 나는 결국 메일주소를 알려줬고, 그 날의 인연으로 그 여대생은 나의 절친한 벗이자 육군사관학교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미팅이지만 내겐 아름다운 봄날에 추억을 남겨주고, 게다가 소중한 친구도 선사해주는 이런 점이 육사가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김기범 (3학년, 군사사학)

4월, 부끄러우나 아름다운

주제수필



주제 : 낮선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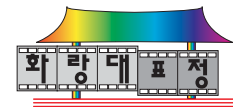
2년 전 꿈과 기대를 안고 서울여대 캠퍼스에 들어서던 그 시절, 벚꽃이 흩날리던 4월, 서울여대생이라면 꼭 한번 하게 된다는 육사생도와와 미팅을 하게 되었다. 원피스를 입고 최대한 여성스럽게 하고 육사로 향했다. 어느 학교보다 맛있는 입구를 지나 우리는 생도들을 만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생도’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인식이 강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바뀌게 되었다. 항상 회색 제복을 입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다른 존재로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생도들이 나의 친구처럼 환하게 웃고 있던 것이었다.

우리 바로 육사빵집으로 향했다. 평소 다른 대학과 미팅을 하면 항상 술을 먹고 소주 한 잔이 발칙이었지만 역시 육사는 달랐다. 쓴 술잔 대신 달콤한 빵이 발칙이었던 것이다. 색다르지만 어색함과 부끄러움이 공존했

던 빵집을 나와서 우리는 아름다운 4월의 육사를 거닐며 산책을 했다. 육사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느 곳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었다. 구경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팅은 끝이 났다. 그날의 미팅은 나에게 멋진 친구 하나를 남겼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나의 꿈은 공사를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고 시력문제로 내 꿈은 저 푸른 하늘로 날아갔다. 그래서인지 난 생도가 부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심이 생겨나기도 했다. 자신의 꿈을 이뤄 냈고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내게 그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다가왔다.

2년이 지난 지금 난 버스를 기다리며 내 앞으로 삼삼오오 지나가는 멋진 생도를 보면 항상 그날의 추억이 떠오른다. 생도와 미팅을 했던 수많은 사람이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이 육군사관학교 생도에게 자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면서 지금 생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신지희 (3학년,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안재호 3학년, 무기시스템공학

노란 빛으로 물들어가는 화랑대
봄이 왔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하지만
이제는 정든 그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슬프기만 합니다.

I ♥ 육사 생도식당 탐방

어머니와 같은 정성으로

벚꽃들이 은은한 물빛의 꽃망울을 막 터뜨리려는 봄의 한 가운데, 기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건강과 입맛을 알뜰살뜰 챙기는 생도식당의 사람을 취재하였다.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여든 여덟 번의 손이 간다고 한다. 그래서 쌀 미(米)자는 여덟 팔(八)자가 상하로 있는 모양(八十八)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성을 담아 항상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

생도들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취사병은 03시 30분에 기상하여 04시부터 생도 식당에서 일과를 시작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생도의 맛있는 아침을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생도에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양질의 밥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시는 영양사 박은선 주무관과, 생도식당의 위생, 병력 및 보급품 관리 등 모든 제반 업무를 책임지는 급양관리관 고경복 상사. 또한 생도들의 건강을 위해 화학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고 오직 멸치와 천연 조미료를 통해 국물을 우려낸다는 조리원 이덕진 주무관 등 수많은 손길들이 생도들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또한 최준용 일병은 “사회



생도식당 근무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께서 준비하시는 아침밥이나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점심, 저녁이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 제 밥상까지 오르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군대 안에서 생도들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면서 요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전역하기 전에 조리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겠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력

하면서 본인의 능력까지 키울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답했다.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먹고 나면 그만이지만 사실 이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1일 권장 영양소 섭취량을 고려한 메뉴 편성 및 식자재 조달, 위생에서부터 조리, 설거지, 식당 청소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보다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피곤함, 볼 앞에 오래 서서 조리를 하면서 느끼는 고단함, 위생에서

부터 보급 등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해 신경써야 하는 것까지. 어찌보면 지치고 힘들다고 말할 법도 한데, 취재를 하는 내내 이들의 얼굴은 밝았다. 기자는 이들이 어쩌서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덕진 조리주무관은 이렇게 답했다. “아침을 다듬거나 고기를 썰 때, 기계를 쓰면 훨씬 빠르고 저희 역시 편합니다. 하지만 모양도 예쁘지 않고 맛도 훨씬 덜 하지요. 음식은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비록 고되고 어렵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생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언제나 식사 시간이 되면 생도식당은 생도들로 북적인다. 배식을 하기 위해 도와주는 영양사,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항상 살피는 급양관리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드는 조리주무관, 맛있는 ‘식수’를 위해 애쓰는 취사병들까지. 모두가 맛있는 식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의 식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라며 밝게 인사하는 생도들도 있다. 이 모든 사람이 만들어내는 맛있는情的의 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생도식당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김세현 3학년, 미국 지역연구

문화산책 - 뮤지컬 ‘The Promise’

전장 속의 그 약속

생도생활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뮤지컬을 보았다. 그리스 맨 오브 라만차, 닥터 지바고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컬을 관람했기 때문이다. ‘The Promise’라는 뮤지컬은 학교의 지원으로 보게 될 기회가 생겨 사전에 자료를 검색해 보았다. 여느 뮤지컬처럼 음악과 춤이 극의 플롯 전개에 긴밀하게 맞아떨어진 연극인 뮤지컬이었다. 다른 점은 ‘전쟁’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작품이었기에 ‘이 작품 편찬을 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처음 접하는 장르의 뮤지컬을 보려간다는 설렘으로 몇몇 동기생과 해오름극장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서 팸플릿을 읽다 보니 어느덧 무대의 첫장막이 시작 되었다. 뮤지컬의 1부에서는 작전 수행 도중 소대원을 잃고 고립된 주인공이 북한군의 포위를 뚫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했다. 전쟁 중 적지에 고립된 군인의 감정과 여러 갈등을 섬세하게 잘 표현하였으며, 각계병사자 전투에 참여하는 다양한 메시지도 전달해주었다.

2부에서는 북한군의 포위를 뚫고 탈출한 주인공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향해 올

어진다. 홀어진 소대원들 각자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실제 전쟁에서 일어났던 참상을 사실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주인공 일행이 먼저 전사한 이들과의 약속, 소중한 사람과 조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위해 전장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다룬다. 공연은 서울중앙청에 다시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몽롱한 가슴으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처음 작품에 대해 느꼈던 설렘은 깊은 감동과 두근거림으로 내 마음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문득 처음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올 때가 생각났다. 나는 전쟁 영화 속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전우애에 반했고, 그런 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 어느덧 3학년이 된 나는 그 당시의 마음가짐을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것 같다. 뮤지컬을 보고 과연 내가 ‘6.25 전쟁에서 싸우다 전사한 선배장병처럼 내 목숨을 바쳐 조국수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 일을 계기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초심을 잊지 않고 생활하도록 다짐했다. 뮤지컬 ‘The Promise’는 나에게 공연의 즐거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심을 되돌아보는 교훈을 주었다.

김초록 3학년, 경영학

10년 단위 임관기념행사(육사인 모교방문 행사)

청년시절에 다짐했던 ‘위국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결의했다!



19기 임관 50주년



29기 임관 40주년



39기 임관 30주년



49기 임관 20주년



59기 임관 10주년

육군사관학교
Korea Military Academy